

1-04 이야기해 봐요



헤리



엄마

헤리: 여보세요? 엄마?
 엄마: 어. 헤리아, 운동하러 가는 길 아니야?
 왜 전화했어?
 헤리: 엄마, 지금 집에 있어요?
 제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가방에 지갑이 없어요.
 엄마: 그래? 엄마 아직 집에 있어. 어디 있는데?
 헤리: 엄마,
 제 방 책상위에 지갑이 있는지 봐 주세요.
 엄마: 잠깐만. 책상위에 지갑 없는데.
 아. 여기있네. 침대위에서 찾았어.
 헤리: 고마워요. 제가 빨리 갈게요.

1-04 이야기해 봐요(활용)

다음 물건이 어디에 있어요?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Where are the following items? Practice sharing answers with a classmate.

듣기

가: 혹시 제 방 책상 위에 지갑이 있어요?
 가방에 지갑이 없어요.

나: 잠깐만요.

음... 책상 위에는 지갑이 없어요.

아. 여기 있어요.

침대 위에 지갑이 있어요.

로 나온 어휘 및 표현

지갑
 유에스비(USB)
 서랍

물건	물건의 위치 ①	물건의 위치 ②
① 지갑	책상 위 X	침대 위 O
② 유에스비(USB)	노트북 옆 X	책상 서랍 안 O
③ 휴대폰	식탁 위 X	소파 위 O

한국반	전통적인 단어 찾기	'소나기' 보기 전
-----	------------	------------

- 다음 보기는 '소나기'중 등장한 우리나라 전통 물건이나 또는 놀이, 일들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소나기'를 잘 보고 내용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ppt 참고)

키 성묘 돼지오줌보 지게 다듬이질 징검다리 오
쟁이(오재미) 공굴리기 우물 조약돌 외양간 허수
아비 원두막 송진 탈곡기

1. 이불이나 옷감에 입힌 풀(starch)이 너무 뽀뽀하지 않게 방망이로 두드려 펴는 일
2. 공이 없던 시대에 돼지의 방광에 공기를 넣어 공으로 사용
3. 조상의 묘(무덤)를 찾아 절을 하고 묘를 돌보는 예식
4. 밭을 지키기 위해 지은 높직한 막
5. 논이나 밭에 새나 짐승을 막기 위해 세워 놓는 사람처럼 생긴 물건
6. 소나무에서 나는 끈끈한 액체, 소년이 소녀의 상처에 발라 줌
7. 곡식의 알맹이와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 쓰는 물건, 소년의 동생이 오줌을 싸고 소금을 받으러 가기 위해 머리에 쓴 물건
8. 추수한 벼에서 알곡을 훑을 때 쓰는 기구
9. 소나 말을 기르는 곳
10.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기구
11. 개천이나 냇가에 돌덩이를 드문드문 놓아 만들 다리
12. 지푸라기나 작은 천 속에 곡물이나 굵은 모래 등을 넣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운동회 장면에서 아이들이 큰 공을 터뜨리기 위해 던진 물건
13. 땅을 파서 물이 모이게(괴게)한 설비, 물을 뜨던 곳
14. 학교 운동회 때 많이 하는 경기로 여러 명이 큰 공을 굴리는 경주
15. 작고 동글동글한 돌, 소녀가 소년에게 던졌던 하얀 돌

- 드라마 초반 부분과 소설 원문의 도입 부분을 비교하며 읽기

소 나 기

황순원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년은 개울 독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뻘히 들여다 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 독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 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 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별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핵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별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 쪽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 가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뵈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 보았다. 물기가 겹쳐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부터 좀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뵈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뵈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보았다. 물 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 속을 들여다 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년은 두 손으로 물 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은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 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 졌으면 좋겠다. 이 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 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내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다. 미간이 아찔했다. 짹짹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 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